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월 21일 (토) 제 1906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hpress@gmail.com

크리스천답게 정치하라!

처치리더스.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가 말해주는 정치적 크리스천의 의미/행동 소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 활동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성경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정치 참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James Emery White,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4번째 총장으로 섬겼으며, 신학과 문화 교수로 재직 중) 목사는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온전할 때, 세상과는 결이 다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On Being a Political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마 5:13-16). 빛과 소금은 여러 중요한 의미의 비유이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소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과 향을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생선이나 고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먹기보다는 그 전에 거기에 소금을 칠 것이다. 소금은 고기가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존재해야 하며, 소금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빛은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 소금은 무엇



에 대해 대항하고 막아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빛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는 소금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문화적 침식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존 스토프(John Stott)'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서 고기가 상했다며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난이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존 스토프의 이러한 질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참여나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신경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음,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냥 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동적인 시민 활동이며, 치명적인 결점인 운명론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말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

도 없다.

이처럼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치적인 일들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 있어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입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투표 활동에 정치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까?

(2면으로 계속)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혼 훈련의 찬양이다!

TGC, 작곡 250주년 맞아 우리가 잘 모르는 8가지 사실 소개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1773년 1월 1일, 250년 전 새해 첫날, 잉글랜드 소을 올니(Olney)의 한 교회에서 최초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렸다.

곧장 널리 알리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이 찬송은 아메리카에서 교파를 넘어 모든 교회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 찬송은 서부 개척자들에게는 부흥 성가가, 흑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가가, 그리고 20세기에는 찬송가의 표준이 되었다. 그다음에는 1947년에는 머헤이리어잭슨(Mahalia Jackson)이, 그리고 1970년에는 주디 컬린스(Judy Collins)가 음반으로 내는 등 라디오 시대와 함께 음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그 아래로 이 찬송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인지도 높은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널리 퍼져나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파고들기도 했다.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그렇지만, 다들 익숙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적지 않다(250 Years Ago Today: John Newton's 'Amazing Grace' First Sung: 8 Things You Probably Didn't Know About the Evangelical Hymn).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민경업 목사



4면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13면

교회학교의 선수환
조용중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월드쉐어 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호텔식 하숙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신년 축복성회

Uni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2023.1.26(목)~29(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조지훈 목사(조이풀교회 담임)



조지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 발행인 칼럼 ●

담대한 신앙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고난이 다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부모와 우리 부부의 눈시울이 모두 뜨거워졌다. 그 자매는 5년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리고 힘든 치유 과정 끝에 완치되었다는 판정도 받았다. 큰 병원의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자매는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누군가를 돋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 업무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기만의 시간까지 내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보고 늘 살핀다. 교회에서 교사로서도 열심히 섬긴다. 그런 자매가 지난 12월에 자궁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고 얼마 전 부모와 우리 부부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매로서 재발 소식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상황을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데 쓰임 받도록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 담대한 신앙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기도를 일삼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 다른 자매의 담대한 신앙 이야기이다. 얼굴에 살짝 수심(愁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중한 실력으로 정성을 다해 새벽예배 반주를 잘 섬기니까 그 자매에게 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온 했다. 그는 자기 반주만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듣는 태도며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잘 보여주곤 했다. 얼마 전 그 자매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일 년에 한두 번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그런 일은 드물었다. '아픈가' 나도 궁금했고 전도사님들도 궁금해했다. 그날 오후 전도사님 두 분이 그 자매를 만나러 갔다. 왜 안 나왔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다음 날 그 자매를 내가 만났다. 그 때 알게 되었다. 그 자매가 얼굴에 수심이 깃들었던 이유를.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반주를 정성으로 섬긴 이유를. 그 자매는 팬데믹 전에 새벽 반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 새벽예배 반주를 부탁받을 때 그 부탁한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주는 해보시라는 듯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화 중에 어떻게 그 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몇 년을 지났을까 하는 앙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마음속에 그 자매의 오해에 확신(?)을 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서, 모든 사역은 매년 임명하였는데 새벽 반주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며 이제껏 지낸 것이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담임목사인 내가 맨 먼저 포함되리라) 인정받지 못했어도(크나큰 오해였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매일 새벽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담대한 신앙이다. 역시 부끄러웠다. 수년 동안 힘들어한 성도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고, 나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웠다.

로마서 16장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모두가 바울의 이름과 같은 동역자들이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내가 전 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예나 지금이나 자매들이 담대한 신앙을 보여 준다. 2023년, 나도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66-4400(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팬데믹 부수 효과, 최고 갑부들만 누렸다!

WIL,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통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현실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최고 갑부들이 소유한 부는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The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resents the most up-to-date &

complete data on inequality worldwide: global wealth ecological inequality income).



부자세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소득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구할 재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부를 재분배할 '전 세계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누진적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IL 보고서는 "막대한 부의 집중을 고려할 때 적당한 누진세는 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7일, 소득, 부, 성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현재 상위 소득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8%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995년 이후 억만장자의 재산은 1%에서 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는 더욱 심해졌다.

2020년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점유율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해"였다고 밝혔다.

세계 상위 1%는 1995년 이

후 축적된 부의 3분의 1 이상

을 가져간 반면, 하위 50%에

계는 2%만 주어졌다.

루카스 챈슬 WIL 공동 소장은 AFP 통신에 "코로나19가 1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억만장자들의 부는 3조 6000억 유로 이상 증가했지만, 1억 명은 극빈층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극빈층이 지난 25년 동안

감소해왔던 것과 대조적인 결

과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2명의 경우, 지난 25

년 동안 매년 9.2%씩 부의 가

치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주목

했다. 이는 다른 집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노동 소득에서 여성

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미만

이었다. 1990년 약 30%였던

수치에 비하면 높아졌지만 여

전히 남성보다 낮았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향

한 것이지, 어떤 당이나 이념

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국가

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

치적 당파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

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쪽

진영이 더 옳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쪽 진영이 더 낫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논지의

이슈에 대해서는, 두 진영이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도 알 것이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

로서 우리는 어떤 한 정당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절대 그 정당의 의

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

리는 항상 정당들을 넘어서 존

재해야 하며, 거기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길 원하시고, 듣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치적인 입장에(political party)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어떤 주(또는 국가)에 주인이거나 하인이 아닌, '양심'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우리는 '두 가지의 악들(Evils)' 중에 그나마 덜 악한 것에 투표하는 것뿐이다.

어떤 정책이 정치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어떤 후보의 정책이나 성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한 정당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절대 그 정당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정당들을 넘어서 존재해야 하며, 거기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3면으로 계속)

교회인쇄물·현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초대의 말씀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모든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기관 소개와 함께 연합 기도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의 후원에 동참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십시오.

2023년 1월 21일 (토) 오전 7시20분
은혜한인교회 친교실 2층



문의 : OC교협 심상은목사 (714)722-4805

온라인 등록 : 구글 다큐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YrXuh94rB_JzwpsYT-vKhyEUJ4uNXIORG1qUBN4huEug/edit

2023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크리스천답게 정치하라!

<2면에서 계속>

이 세상에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기에 어느 쪽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반응하곤 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투표용지 후보에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누가 선거에 출마하든지 간에 여러 악 중에서 그나마 덜 악한 것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똑같은 일을 매 선거마다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투표’ 해야 한다.

나는 지금껏 당신이 선택한 것보다 더 과감한 제안을 하니 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후보자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 한 것은 그 후보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대표자(ex. 의원,

주지사, 대통령 등)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간과하는 것 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대 표하는 목사를 선출하는 일 이 아니라는 것이다.

3. 기독교 정치 참여의 핵심은 성경적 세계관을 주관 하는 기독교 정신이다.

그래서 투표의 핵심은 무엇 인가? 정치 참여의 핵심은 무 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투표에 대 해서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대다수의 그리스 도인들은 투표와 정치적 참 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분류해내는 것이다. 이는 특정 카테고리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신앙’과 ‘일’, ‘페이스북’, ‘주식시장’ 등 이 모든 것들을 각각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분리된 영역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생각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의 신앙을 끌어 맞춰 통찰 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인 간의 성화된 삶과 인간의 삶의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동성 결혼 또는 성 정체성 을 둘러싼 첨예한 문제에 대 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적 관점으로 사회적 이슈를 보려고 시도하는 그리 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생 각을 복음주의적인 열정으로 인식해 버린다.

나는 2016년 선거 기간 때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이 리서치에서 발견한 것은 10 명 중 1명꼴의 사람들만이 성경이 그들의 정치적 견해 들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 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나 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친구 혹은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세계 관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한다. 여기서 ‘세계관’이 핵심 단어이다.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준거 틀을 마련해 준다. 이것은 인간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광범위한 인간의 생각과 창조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 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의 기독교적 인 세계관은 각종 인종차별 에 저항하는 것들이었다. ‘버 밀업 감옥’에서 그가 썼던 글을 통해 그의 세계관을 자세히 통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2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 정의로운 법과 불 공정한 법이다. 정의로운 법은 도덕률 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형성된 법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법은 도덕률에 어긋나는 법이다. 모든 차별과 관련된 형태의 법은 전부 불공정한 법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간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킹 목사의 이러한 주장을 다른 어떤 세계관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통해 킹 목사는 하루하루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

쟁점은 그리스도인이 투표 를 거부함으로써 정치적인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 지 않다. 핵심은 그리스도인 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시론

기쁨은 선택이다!



민경업 목사
(나침반교회)

선교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된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 면에서 낙후된 환경의 땅에서 산다면 그 자체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지낸 어떤은 퇴한 선교사에게 물었다. “만약 다시 선교지에 간다면 제일 먼저 가방 속에 무엇을 넣겠는가?” 돌아온 답은 유머 감각이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웃을 수 있고 남을 웃길 여유가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 이다. 지난 3년여 코로나 블루로 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코로나 변이들은 아직도 진화하는 중이니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작년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휘청댔고 뛰어오른 물가가 가계 경제마저 숨 막힐 지경으로 물고 가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온갖 재해가 끊이지 않는 등의 암울한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올해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헷세는 이런 글을 남겼다. “당신은 내게 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꽃이 없어도, 아니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런 우울한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쁨이다. 기쁨은 무슨 일든 대처할 능력을 갖게 해준다. 기쁨을 가졌다는 것은 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상황을 장악할 자신감이 있다는 여유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너너함이 있다면 상황은 시간과 함께 반전되고 문제는 어느 순간 풀려질 수 있다. 그래서 C. S.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나라에서의 중대 사안”이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단언컨대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빌립보서를 썼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인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에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가 기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고 완성이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되지만 완성되지 않는 일 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기쁨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우리의 삶은 비록 늘 불완전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의 기쁨을 앓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여류시인 엘라 헐러 월록스는 <운명의 바람>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바람은 한쪽 방향으로 불고 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누나.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해 주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둑의 방향이니라.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운명의 길은 바다의 바람과 같은 것이니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고요함이나 고난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세운 방향이니라.” 배가 가는 방향은 바람이 아니라 둑이 정한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주변의 환경이 제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둑이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쁨의 이유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기로 결단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 원하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쁨은 우리의 선택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골 4:4).

thechoi82@yahoo.com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면에서 계속>

1. 미국 의회 도서관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컬렉션이 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은 3,000편이 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곡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곡들은 193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LP, 카세트테이프, CD 및 기타 형태로 녹음된 것들이다. 이 컬렉션에는 클래식에서 컨트리 음악, 가스펠에서 랩, “월드 뮤직”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2.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한 구절은 사라졌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오리지널 버전은 여섯 절이 있었지만, 1910년에 에드워 옐로우(Erwin Othello Excell)이라는 진취적 넘치는 찬송가 발행인이 마지막 세 절을 “When we've been there ten thousand

years(거기서 우리 영원히)로 시작하는 절로 대체했다. 그는 이 절을 70절이 넘는 “예루살렘, 행복한 우리 집”(Jerusalem, Our Happy Home)이라는 찬송가에서 가져왔다. 그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 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의 눈에는 문법에도 오류가 있다.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더 많은 날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리라)에서 “less days”는 “fewer days”가 되어야 한다.)

3.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백파이프 연주는 최근에 이루어진 혁신이다.

엄숙한 국가 행사나 장례식에서 백파이프 연주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것이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Royal Scots Dragoon Guards(영국 육군기병대)가 이 노래를 백파이프 연주곡으로 녹음하여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72년이었다. 이 군악대의

“Amazing Grace” 연주곡은 벌 보드 탑 40에 8주나 올랐다.

4. 원래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었다.

첫 제목은 “Faith’s Review and Expectation”(신앙의 회고와 기대)였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회고) 앞 날을 내다보면서(기대) 지은 노랫말이기 때문이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수많은 위험과 노고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본다. 또한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여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알기에, 용기와 확신으로 앞날을 내다본다.

5.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원곡은 미상이다.

널리 불리고 있는 현재의 곡은 1829년에 처음 출판된 “뉴 브리튼”(New Britain)이라는 곡이다. 그러나 이 가사가 250년 전에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에는 악곡 모음집이 따로 있어서, “Amazing Grace” 같은 “보통운율”(common meter) 찬송기를 거기에 맞추어 불렀을 것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노랫말을 붙여 부른 초기 가락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곡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뉴브리튼”은 대중적인 5음 음계(피아노의 검은 건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폭넓은 호소력을 얻는 데 이바지했다.

6.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노예 무역상이었던 사람이 썼음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가가 되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서 흔한 복음성가로 애창되고 있으며, 메히아리어 제슨, 어리서 프랭클린(Aretha Franklin), 제시 노먼(Jessye Norman), 윈틀리 피프스(Wintley Phipps) 등 많은 사람이 인상 깊고 인기 있는 공연을 펼쳤다.

6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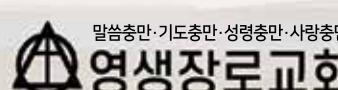
-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 (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 (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Young Sang Presbyterian Church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NYU 의과대학 휠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과 휠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휠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사세미나연구원 원장)

큰 꿈을 가져라

(창 13:14-15)

꿈이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목초지 문제로 조카 룻의 종들과 갈등하자, 아브라함은 통 크게 양보했다. 나이도 많았기에 그만큼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종들이 서로 주인의 가축을 위해 더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조카에서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라고 하자, 룻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물

이 넉넉하였으므로 그 땅을 택한 후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이 삼촌을 훌쩍 떠나버렸다. 늙은 나이에 이방 땅에서 혼자가 된 아브라함은 의지했던 조카 룻이 떠나갔을 때, 상상 할 수 없는 고독감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놀라운 꿈을 주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놀라운

언약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을 통하여 보는 꿈의 영역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하신 영역인데 (창 15:7, 출 23:31) 북은 유프라테스, 남은 흥해까지였다.

그렇다면 결코 작은 땅이 아 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영역을 얻지 못 했다. 그 이유를 Monk라는 신학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간파했다. 하나님께서 언 약하신 축복은 항상 믿음과 용기를 통해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크릿 (The Secret)이란 책에서 본다면 수 세기 동안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하면서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정말 이루어진다. 반대로 원하

지 않지만, 자꾸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신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꿈을 가져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갈 3:7)들이기 때문이다.

1952년,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 때 힐러리 (1919-2008)가 남긴 명언이 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나는 힘도 능력도 자랄 것이다. 내가 가진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결국 그는 꿈처럼 1953년, 5월 29일에 세르파 덴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할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꿈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매 순간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다시 부르심으로 그 분 앞에 섰을 때 더욱 성숙해 진 모습을 원하심이 아닐까?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이셨는데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천명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빈둥빈둥할 수 있겠는가!

하나 더 예를 들고 싶다.

헬로의 거장 카잘스다. 그는 95세가 되었는데도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한다. 기자는 질문했다. 이런 연세에 흡족하게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려자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내 실력이 조금 씩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꿈을 성취해야 할 이유는 선한 영향력

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것은 전도의 놀라운 효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선명한 꿈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도전할 때, 각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어느 성 악가는 이런 고백을 했다. 가사가 외워지지 않을 때 100번을 반복하고 그래도 외워지지 않으면 200번을 반복한다고... 이런 정신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싶다.

우리의 꿈꾸는 근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새해 벽두에 큰 꿈을 가지고 저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금년 2023년에!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뉴욕심포니교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해안선이 긴 나라답게 수산물 수출로 세계 2위입니다. 특별히 노르웨이는 연어 수출 대국입니다. 노르웨이의 연어는 전 세계 연어 수출 양의 47%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연어의 90%가 양어장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 양어장에서 길러지는 모든 연어의 운명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어장에 있는 연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모릅니다. 그 양어장을 탈출해서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놀고 싶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 전부인 줄 알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연어들은 양어장에서 태어나 그냥 그렇게 사람이 주는 사료를 열심히 먹고 몸을 불려서 사람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탄이 주는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영생에 대한 갈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각각이 없이는 회개도, 거듭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부터 견짐을 받은 자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

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 선, 자비 같은 것은 하나님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패하거나 죽거나 없어집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 분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 중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선악 기준으로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도적질 했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 분 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dongkshin@gmail.com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로마서 3:23-24

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즉 구원은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살았던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온 희생으로 죄를 얻은 자"가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파는 가게에 가보면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비린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냄새가 몸에 배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가득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아담의 죄

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들 중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선악 기준으로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어거스틴이 회심 후에 옛 습관의 유혹으로 갈등하고 자기 힘으로 죄와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서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에게만 매달리고 있나. 어서 그분에게 그대를 맡기게" 사람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회심 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읽고 있는 '책'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학교 도서실에 배치된 책들 중, 10세 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Lawn Boy란 보이"라는 소설을 쓴 조나단 에비슨(Jonathan Evison) 작가는 자신이 쓴 란보이라는 책이 학생들 학교 도서관에 비치될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 도서실에 배치된 책들이 어린 소년들의 성관계뿐 아니라 소아 성애자를 정상적으로 보도록 미혹하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지향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지요.

란보이나 이런 책들의 내용 전개는 주로 어른 남성과 어린 남자아이의 "로맨스"로 만들어가지만, 결국 어린 소년에게는 육체적 강간과 엄청난 정신적 학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자체를 어른의 눈으로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린 십대 소년들끼리의 성관계까지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립 학교에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교육"을 통해 이미 잘못된 성관계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이런 책들을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보면서 마치 "확인 confirmation"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악한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저항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책들을 자녀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책들의 내용들은 "소아 성애"를 성적으로 매우 그래픽하고끔찍한 묘사들과 장면들을 다른 책으로써 절대로 자녀들이 보게 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가보니, 학교 도서실에서 아직도 버젓이 발견되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들이 "소아성애"를 정상화하게 시키려는 현 바이든 정부의 "소아성애 정상화" 정치적 정책을 학교 안까지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미디어를 통해 알리며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주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12개의 주들은 이런 책들을 정지시켰습니다.

2021년 11월에 베지니아에서는 부모님들의 항의로 인해 사라졌던 책들 중, "란 보이"와 "젠크 퀴어"라는 책들이 어린 십 대 소년과 남자 성인과의 성



위 사진의 브랜디 버크먼(Brandi Burkman, 43)은 2021년 9월 텍사스에서 열린 학교 이사회에서 '이런 책으로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초등 학교 4학년 간의 성행위를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아성애자"이고 우리의 자녀를 세뇌시키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학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행위 사진을 포함한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학군 위원회에서 이 책들이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하다고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들을 다시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는 학교 위원회와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3권의 책을 가져와 자녀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하며, 얼마나 부적절한지 한번 읽어보겠으니, 들어보라고 한순간,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가 책을 읽지 못하게 마이크를 꺼버린 것입니다. 위원회가 무례하게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한 이유를 요구하자, 위원회는 그 아버지가 읽는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꺼렸다고, 참으로 기가 막힌 주장은 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 도서실에 배치한 책들이면서 아이들이 들을까봐 마이크를 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외 또 다른 책들은 사라 J. 마스(Sarah J. Maas)의 'A Court of Silver Flames'은 빛 불꽃의 법정'과 엘렌 휴킨스(Ellen Hopkins)의 '트라이앵글스 Triangles'입니다.

세 권의 책 모두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다양한 성적인 만남에 대한 생생한 세부 사항과 그림들을 담고 있습니다. No Left Turn in Education 의 플로리다 지부의 회장인 브루스 프리드먼(Bruce Friedma)은 이 책들은 절대로 십대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겉으로는 어린이 책같지만

만, 내용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책들이 학교 도서실 안에 들어온지 이미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Deep Blue States들 안에 있는 주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책들은 어떤가요?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동역하는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과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 내용을 먼저 확인했는데 별 특별하게 성적인 내용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책 속 부모의 사진이 둘 다 남자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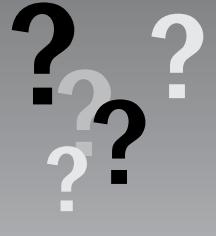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책 하나하나마다 정말 조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였습니다.

이 책들 외에 보지 말아야 할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봐야 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 Tvnex.org 홈페이지에 자주 들려주셔서 올바른 정보를 꼭 받아보시고, 자녀들 교육과 특별히 그들을 위한 resources들도 많이 행거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읽지 말아야 할 책들, 읽어야 할 책들 리스트도 곧 올릴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양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성경을 읽다가 약간 모순되는 듯이 보여 질문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삼하 24: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역대하 21: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 조사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 구절은 모순되어 혼란을 줍니다. 목사님의 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인랜드에서 이권사

"인구조사 다윗이 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의 행동 잠시 허용"

A: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지 않는 학파인 신정통주의의 바로우스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데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지적한 것과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삼하 24:1절에도 있고 역대상 21:1절에도 있습니다. 삼하 2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 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여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단으로 말미암은 듯합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자인 바로우스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을 조심스럽게 잘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별을 받을 만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결단코 범죄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하 21:1절의 하나님은 다윗을 감동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성령으로 감동해 그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군대 수를 의지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일이지만 다윗이 그것을 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읍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청원을 허용하심으로 읍이 당한 시련이 마치 하나님에게 주신 것처럼 말할 수 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역대상 21:1절의 말씀이 풀립니다. 곧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충동한 자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알 때 성경의 난제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의 행동을 잠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두 본문에서 서로 모순된 듯한 기록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참고사항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제거할 것.
 -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흥귀표 목사
서 기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 신약주해: 하브리서 10:19 - 25
- 논문제목: 포스트 편집학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 설교분론: 구약 - 아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1 - 5
-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제 및 논문은 아래 치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제는 각각25쪽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제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 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 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이력서(액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때를 아는 지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옮기고 옷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

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훼맬 때가 있으며 잡잡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전 3:1-8)는 말씀이다.

지금은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1월이다. 그러나 3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19는 여전히 기승이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지구촌이 신음하면서 신뢰는 깨지고 희망은 잿빛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했다. 더하여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는 경제, 정치, 외교를 넘어 정부나 기업들이 새해에 대한 청사진을 펼치지 못하며 미래학자들조차 지금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때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헐 때인지 세울 때인지 심을 때인지 뽑을 때인지가 오리무중이다.

선교지에서 철수할 당시엔 여러 사안을 종합해보니 일보 후퇴가 필요하게 느껴졌으나 그 이후 재진입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고민은 지금이 기다릴 때인지 중단할 때인지를 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울은 강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 바울이 되었다. 다메섹 노상에서 겪은 불가항력적 현상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으나 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때에 대한 갈등은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때를 버렸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 나사로가 병들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을 때였을까?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코 쉽지 않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하늘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므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란의 단초를 만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이 대답은 의외였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며 그 계시던 곳에서 이를 더 유하신 뒤에야 거동하셨다. 그 이를 사이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묻혔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때를 놓쳤다고 원망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마르다조차 주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 나사로가 병들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을 때였을까?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뒤였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현재 세계인구는 80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 모든 자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80억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주관을 고집하며 나를 우선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요인일 수 있다.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지금은 바로 구원을 선포할 때인 것이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사가 된다. 이천 년 전에 오신 그 초립의 사건이 이제도 이어져 죄

로 인해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주관적인 욕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실망이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버린 현상을 뛰어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모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를 합창하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이다. 땅에서 울려피는 이 희망의 찬양이 지구촌을 읽어내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어 하늘에 매인 것까지 풀리기를 소망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당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따라 땅에서 매인 모든 것을 푸는 때가 바로 우리가 맞이한 새해였으면 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과학계 “올해 엘니뇨 돌아오고 내년에 더 더위진다”

동태평양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가 올해 발생해 내년 전례 없는 폭염이 세계 곳곳에 발생할 수 있다



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형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7일 과학자들을 인용해 오는 8월부터 엘니뇨가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가 악화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0.3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엘니뇨는 본래 한류가 흐르던 남미 페루 근처 해역에 북쪽으로부터 따뜻한 적도 해류가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하강해야 하는 공기가 상승하고 그 결과 남미 서해안에는 흉수가 발생한다. 반대로 태평양 서쪽 호주 등에서는 가뭄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엘니뇨가 형성될 가능성이 66%라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호주 기상청도 지난 3일 올해 호주가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가물고 더운 시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는 최근 3년간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는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은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라니냐가 연속해서 발생했다. 제임스 햄슨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수는 “라니냐가 4년째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 인구 61년 만에 감소했다… 사상 최저 출생률

중국 인구가 대기근에 시달렸던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자국 인구에 대해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14억1260만명) 대비

85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인구 감소 통계는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 집권 시절 대약진운동을 계기로 대기근(1959~1961년)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6만명, 사망 인구는 1041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률은 0.677%(1000명당 6.77명)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 사망률은 0.737%(1000명당 7.37명)로 1975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됐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0.06%로 대기근 이후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비중은 16~59세 노동연령인구가 8억 7556만명으로, 전체의 62%가량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인구가 2억8004만명으로 19.8%, 65세 이상 인구가 2억978만명으로 14.9%를 차지했다. 고령자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 인구가 2022년 각각 14억명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유엔은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 인구의 중국 추월 시점을 2027년쯤으로 지목했지만, 그 시기가 4년이나 앞당겨졌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0년 전 약 70%였던 중국의 노동 인구가 지난해 62%를 기록하며 이미 감소세에 들어갔다. 국가 연금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공화당 법안 거부권 뜻 밝혀… “재정적으로 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권을 암박하기 위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주요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를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연일 통과시키며 압박을 지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정부 조치로) 올해 연방赤자가 1조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지만, 그들은 민주당의 거액 지출을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며 공화당을 향해 “재정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fiscally demented)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난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법안이 평범

한 중산층 남세자를 희생해 가며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들플리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부자만 들플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지난 9일 공화당 전원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한 국세청(IRS) 예산 삭감 법안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IRS에 직원 8만7000명을 고용할 예산을 줄 납세자를 추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이 법안으로 국가 채무가 114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게 공화당의 첫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공화당 버디 카터 의원이 발의한 공정세법에 대해서도 “그들은 노동자들이 세금 10~20%를 더 내기를 원하고, 슈퍼부자에 대한 세금은 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은 IRS를 폐지하고 소득세 대신 연방 소비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수천 개에 세금을 매겨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한다”며 “식료품, 기름, 의류 등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것에서 판매세를 걷어 백만장자로부터 겉지 못한 세금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러·벨라루스 합동 비행훈련 시작

러시아와 최대 우방국 벨라루스가 16일부터 합동 전술 비행 훈련에 돌입했다. 벨라루스는 ‘방어 전 성격의 훈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서방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벨라루스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하는 러시아와 합동 전술 비행 훈련은 전적으로 방어 임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리아 노보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파벨 무라베이코 벨라루스 국가안전보장회의 1차관은 “이번 합동훈련의 본질은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2월 전쟁 초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공격 통로로 삼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번 훈련도 러시아의 공격용 훈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 지역 주둔을 허용하고 연합훈련을 진행해온 만큼 참전 가능성은 계속 거론됐다.

전쟁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니프

로 아파트 폭격에 따른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44명이고 부상자 75명이어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드니프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다.

서방이 박격포와 같은 중화기를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엔스 스톤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5일 “곧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추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독일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내로 중국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될 수

도 있다고 예상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C)는 16일 중국이 지난해 2021년보다 55.4% 증가한 311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1위 수출국은 일본이다. 자동차 산업 분석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일본은 32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2021년에는 382만대를 수출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자동차 수출 실적은 261만대로 집계됐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전기차 판매 덕분이다. 지난해 중국은 67만9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다. 2021년보다 120% 증가한 수치다. 중신증권은 오는 2030년에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550만대에 이르고 그중 250만대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랜 기간 자동차 시장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 BMW 등 외국 완성차업체들이 장악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비야디(BYD)나 지리(Geely) 등 토종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시키며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 지난달 중신증권은 오는 2030년에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550만대에 이르고 그중 250만대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했다.

풀 궁 UBS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경쟁사를 앞서 나가고 있고 현지에 생산 기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 확실한 시장 리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비야디는 지난해 하반기 테슬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회사가 됐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첫 번째 승용차를 출시했으며 노르웨이, 싱가포르,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고 확신한다.”

7.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다윗의 시를 의역한 것이다.

존 뉴턴은 1773년 새해 첫날 역대상 17:16-17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는데, 그는 이 설교에 맞춘 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다. 그리고 6년 후에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달아서 이 노래를 발표했다. 이 성경 본문에서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과 그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예언자 나단의 예언에 놀라움으로 응답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인가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달리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게 된 살인자요 간음한 자였다. 그러한 디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 은혜를 베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은혜는 다윗의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될 것이었다.

8.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혼의 훈련이다.

존 뉴턴이 이 찬송 시를 지었을 때, 이 노래는 그 자신을 꾸준히 점검하는 단련의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3)

리查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침, A Call to the Unconverted]

1장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3)

을 막지 못하도록 하려는가? 하나님의 인내는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르고 계시는 동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3) 현세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
(1) 왜 세상적인 일에 그토
몰두하는가?

우리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

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 하며, 거룩함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대신에, 마음에도 없고 생기도 없는 몇 마디 말로 때우고 만다. 또한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때 거짓으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받지 못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사역자들에게 묻는 가족들이 얼마나 적은가! 또한 간절히 영생을 구하며, 기꺼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들은 조마가 자시들을 주의 짐안들

은 노년간 사인들을 죽을 떠나면서
에 대항하기보다는 주님과 주님
의 말씀과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
항할 것이다. 죄가 이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고, 이들의 마
음을 강퍅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와 같은 빛과 은혜의 날들에 그들
은 빛과 은혜의 완고한 원수들이
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자
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
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2) 너 이승 끗기 전에, 이는
혜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어리석고 비참한 영혼들이여(

갈 3:1)!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미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죽은 것에 빼앗겨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치명적인 원수가 되어 고집스럽게 계속 멸망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이 구제불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설득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행복한 부자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이다. 돈이 많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부호들의 자살 소식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돈에 대한 환상은 오히려 인간들의 삶을 더 많은 근심과 고통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돈 문제만큼 실질적인 것도 없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돈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을 본다. SNS를 통해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익히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는지에 집착하지만 정작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 투자는 아까워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돈만 사랑하며 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디모데 전서 6:10)라고 말한다.

개혁주의 목사이자 강교도 전목사였던 조엘 비키(Joel Beeke)는 세속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목표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사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거룩함보다는 외형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이기적인 갈망을 분출한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세속주의의 전형이다.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처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며 외형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숙고해 볼 만한 사실이 있다. 성경 인물들의 삶, 특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무에 따라 그의 삶의 결이 달랐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나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반역으로 난세를 보내야 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밀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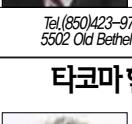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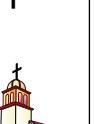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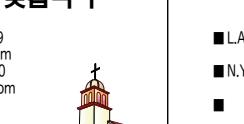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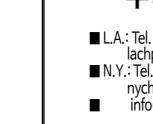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났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선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의 원리를 명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2023년 새해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육으로 행복한 부자 되기를 기원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역대상 29:12).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다민족 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벤엘교회</p>  <p>담임목사: 백진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영어예배(한): 오전 11:30 죽기4부예배(한국):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새벽기도회: 오전 11:00(금) 오후 8:00</p>
<p>새생명한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알칸사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컬린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워싱톤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동부교계 게시판

Urban Mission Center 신년축복성령집회

뉴저지 Urban Mission Center(원장 노복순)는 2023 신년 축복성령집회를 1월 18일(화)-19일(목) 오전 10시, 저녁 7시에 이상목 목사(이어리한인장로교회)를 강사로 개최한다. 주소: Urban Mission Center 1645 Palisade Ave. 2F. Fort Lee, NJ 07024

▲문의: 노복순 원장 201-315-6867, 유니스 원장 973-747-4406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2023 신년하례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근재 목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하례식을 1월 29일(주일) 오후 5시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가진다. 주소: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문의: 종무 신칠웅 목사 201-388-5813

뉴저지 세빛교회 EM/Youth 목회자 청빙

중부뉴저지 위렌에 위치한 세빛교회(담임 김귀안 목사)는 함께 동역할 Part/Half-Time 목회자를 청빙한다. 자격: 정규신학교 졸업자, 목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목회 팀워 모집분야: Youth Group and Young Adults, 1명. 사역: 매 주일 EM & Youth 설교, 학생 활동, 성경공부 및 여름수련회 진행 등.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설교영상 (if possible), 추천서 1인 웹사이트: <http://www.sebitchurch.org> 교회주소: 128 Stirling Rd. Warren, NJ 07509

▲문의 및 제출처: njsebitpastor@gmail.com

몽고메리교회 부사역자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할 부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 본 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사역종류: 풀타임 제출서류: 이력서 및 설교동영상 2부, 교회주소: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지원처 : kapcmpc@gmail.com (최해근 목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 교회 610-222-0691, 담임목사 267-471-7777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자방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제1차 임·실행위원회 마친 후 사진촬영을 했다

기도회로 새해의 문을 연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자방회

지방회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위해 기도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자방회는 2023년 새해를 신년기도회로 문을 열었다. 뉴욕지방회는 1월 월례회 및 신년기도회를 1월 10일(화) 오전에 애센션예설선교교회(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었다. 1부 경건회는 인도 최창섭 목사, 기도 노기송 목사, 설교 장길준 목사, 광고 종무 박준수 목사, 봉현기도 및 축도 회장 한필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기송 목사는 "팬데믹 기간에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기쁨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마다 기도제목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너희이 이겨나가도록 영육간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장길준 목사는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 2:42)"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팬데믹 이후에 교제가 끊어져 교회들이 당한 어려움들을 나누고, 성경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목사는 "일반적으로 교제란 사람간의 사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고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부 신년기도회는 안승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최웅석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반복됐다.

최웅석 목사는 '지방회 연합과 한해동안 계획된 일정기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위해' 안승백 목사는 '지방회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위해' 김재용 목사가 '미국과 한국의 안정 및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회장 한필상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신년기도회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영육간 전투에서 승리하는 49회기”

제49회기 뉴욕교협 제1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은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양무리교회(담임 이준성 목사 시무)에서 열고 49회기의 사업보고와 지난 10월부터 2023

년 1월 6일까지 감사보고 및 예산 보고를 발표했다. 의장 이준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회무는 박정오 목사(부회계)의 개회기도 후 서기 김홍배 목사의 회원점명, 종무 유승례 목사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어 이창종 목사(준비위원장)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준비보고, 김영철 목사 감사보고, 송윤섭 장로 예산보고, 권케더린 목사(기획위원장) 교협주소록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49회기는 12월 18일 이취임식 후 KCS에서 준비한 선물과 지난 이·취임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023년 교회주소록을 마감하였다.

2023년 수입 지출 예산안은 400,000달러로 책정했다. 수입은 회비 1만7,000달러, 행사헌금 29만5,863달러, 후원금 1만5천달러, 주소록광고 4만달러, 기타 1만9,950.38달러, 이월금 1만2,186.62달러로 책정했다.

지출은 관리비 2만1천달러, 인건비 4만4,300달러, 행정비 6만7천달러, 행사비 21만6,300달러, 후원비 1만9,500달러, 기타 1만달러, 예비비 2만1,900달러로 책정했다. 특별히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회무보고 후 2022년 12월 7일 교협 임시총회 선거 이후 부정시비에 관한 전체보고를 했다.

이목사는 "교협의 끝없는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본회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거룩한 점들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당당히 맞서 본회를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입장"이라 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4가지의 입장을 폈졌다.

이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동의 제청 후 회장 이준성 목사는 징계 건이 통과된

제3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 개최

“다음세대 선교”, 주강사 빌 윌슨 목사

제3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Missional Church Conference)가 2월 17-19일에 뉴저지 필그림선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음세대(Next Generation) 선교”이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다음세대 선교사역들을 소개하고 포럼들을 통해 네트워크 할 수 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2만5천 명, 전세계 25만 명 어이들의 모바일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MWC(Metro World Child)의 빌 윌슨(Bill Wilson) 목사가 주강사이다.

컨퍼런스에 참여 단체 및 사

역 부스는 어린이 전도협회, 시라큐스 난민선교, 오하이오 데이튼 난민선교, AWANA 선교, Metro World Child, SEED JP (Joshua Project), Eastern Christian School, NJCA (기독학교), 풍선아트 선교, Body Painting 선교, PSBC & After School, Praise Ground Kids(Missional Musical Team) 등이다.

컨퍼런스는 2월 17(금) 오후 7:30, 18일(토) 오전 10시-5시와 오후 7시 저녁집회가 필그림선교센터(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에서 열린다.

▲문의: 강미숙 집사 201-982-0506, 고대웅 집사 201-566-8930

(정리: 김재상 기자)



술 미니스트리 첫 디딤 예배 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술 미니스트리 첫 디딤 감사예배

교계를 술 으로, 교회들을 나무로 본다면

술 미니스트리(대표 임성식 목사) 첫 디딤 감사예배가 1월 12일(목) 오전에 로고스교회에서 드려졌다. '술 미니스트리'는 건강한 술(하나님나라)은 건강한 나무(교회)로부터 시작한다는 명제아래 각각의 나무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생명력과 영향력을 지원하고 세워나가는 사역이다.

노성보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권극중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의 설교, 이경세 목사(한샘교회)의 봉헌찬양, 이봉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브솔 시냇가의 교훈(사무엘상 30장 21-25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팬데믹으로 어려운 교계상황을 나누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흔자서는 못하는데 같이 마음이라도 모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 작은 나무들이 술을 이루어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월 부흥성회



- 충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충동문화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충동문화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통문회 회장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 010-5255-7777
Godbles3377@gmail.com

1주~ 3회 4(수) 오전 4(수) 저녁 5(목) 저녁 6(금) 오전 7(토) 오전 7(토) 오후 8(주) 저녁 9(월) 오전 10(화) 저녁 11(수) 저녁 12(목) 오전

수월 예성교회 (성장경 목사) 010-3743-5302
성민중랑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한영대학교 대학교회 (담임 한영훈 목사) 010-2009-7272
세종평화의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성회
국민일보신학대학원 12층 뉴마이엘홀
북인천중앙교회 (장사무일 목사) 010-7733-9106
광명 통증서양교회 (송경식 목사) 010-3687-0115
의정부 평생교육회 (최남수 목사) 행정담당 김현목사 010-7758-7228
서울 강남감리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네이버 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신년예배정소 : 부천예림교회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성남 중앙교회 (이아목사) 010-3133-4244
서울 여정교회 주최 (서울여정교회) 고문 박준자 장로 회장 최금수 교수
발행인 김희숙 목사 010-5591-2325 정소 서울여성신학대학원대학교 (전예상 목사) 010-5171-4984
서울 여전도회회원 (원장 김승희 목사) 010-8861-3223 010-3836-8501

13(금) 오전 14(토) 오전 15(주) 저녁 16(월) 오후 17(화) 저녁 18(수) 저녁 19(목) 저녁 20(금) 오전 21(주) 저녁 22(주) 저녁 23(금) 저녁 24(주) 저녁 25(주) 저녁 26(금)~27(금)

서울 강서구 강일교회 (고수경 목사) 010-2276-03880
시흥 새마을교회 (박승식 목사) 010-5384-0691
새창원 은혜교회 (담임 피운희 목사) 010-4586-8642
서울 강남감리교회 (김성호 목사) 010-7793-9106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서울 조원교회 (신정희 목사) 010-3721-5554
마리나비 복음방송 MGB TV (김드보라 목사) 010-8954-8956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신영호 목사) 살림부흥운동 연합성회
온라인 최자경님 금기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주최 느네미야 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서울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OC전도연합회, 조찬기도회 및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20회 선포축하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아래 태원은 이민역사를 만든 16인 위인전 길 위에 길을 내다 출간을 축하하는 퀘력을 관계자들이 자르는 모습

OC전도연합회, 조찬기도회 및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나의 비전은 부모님처럼 선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주최 제412차 월례 조찬기도회 및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및 신년하례가 14일(토) 오전 8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관하고,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장로협의회,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윤우경 오렌지 카운티전도회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각 교회에서 추천한 선교사 자녀 35명과 지원자 15명 등 총 50명에게 각각 500달러씩 총 2만5천 달러가 전달됐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태국 선교사 자녀 신창영 형제(탈북신학교 재학)는 “나의 비전은 부모님처럼 선교사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오늘 받은 장학금은 저희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것이라 위로가 되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응원, 그리고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지급된 장학금 재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골프토너먼트 행사를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 필리핀, 러시아, 중국, 터

키, 말리, 키르기즈스탄,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요르단 등 해외 13개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선발됐다.

선교사 자녀 학생들은 해외 한인 선교사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현지 또는 한국, 미국에서 학업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어 열린 신년하례는 2023년 회장단과 임원 및 이사회 소개, 2023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양문국 목사(초대회장) 기도로 마쳤다. 한편 신용 회장의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는 민 김 부이사장이 대표기도한 후 한기홍 목사가 “가장 값진 투자를 하라”(눅 5:1-1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신용 회장이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전통 이사가 마무리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축도했다.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오는 4월 상반기 말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에는 목회자블레싱, 8월에는 제4차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위한 글프대회, 광복절 연합예배, 10월에는 교회 연합성가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제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20회 선포축하식 열려

이민역사를 만든 16인 위인전 ‘길 위에 길을 내다’ 출간

제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20회 선포축하식이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13일(금) 오후 4시 밀레니움빌트모어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주 한인 이민역사를 만든 16인 위인전 ‘길 위에 길을 내다’ 책자 발간 축하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창열 회장과 박수영 변호사 사회로 열린 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선포 및 기념식은 베이스 김경태 씨가 애국가를 보컬리스트 다니엘 김 형제가 미국국가를 불렀다. 이어 김일권 박사(120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획총괄위원장)가 축사했으며 이병만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피오나 마 재무장관과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 회장이 커뮤니티 상호 동맹협약 서약을 맺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각계 인사

들의 환영과 덕담 시간도 함께 나누었다. 주디추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김영길 한미총연합회 회장,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주정부 재무장관, 릭 카루소 회장(LA시장후보), 박영선 전부에나파 시장 등이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 축하공연을 갖고 소프라노 임정화 교수(백석문화대학교), 테너 최원현, 소노로스싱어즈, 보컬리스트 다니엘 김, 파비월드 댄싱팀이 무대에 올라 120주년을 맞이한 미주한인의날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어 ‘길 위에 길을 내다’ 책자발간 축하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양성전 목사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한규성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임정화 교수가 특송했고, 이강평 총장(전 기독대 총장)이 설교했으며 양성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이경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회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창립 24주년 기념부흥회가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합심기도로 시작된 첫날집회는 신승훈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가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신 1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경은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열악했지만 코로나를 지나며 미디어 환경이 좋았던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만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 나올 때 우리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려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자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배성공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한국대학합창단 2023년 미주순회 연주회

한국대학합창단(지휘 신승용 교수)이 지난 2019년에 이어 4



한국대학합창단 2023년 미주순회 연주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LA 시스터 오브 세인트 조셉 너싱홈에서 공연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년 만에 미주지역을 방문했다. 한국대학합창단 2023년 미주지역 순회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3일(금) 미주지역에 도착한 대학합창단은 아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19일(목)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동하여 20일(금) 텍사스대학교 Dell Seton Medical Center atrium, 오스틴 Jessen Hall, 21일(토) 오스틴한인장로교회, 22일(주일) The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에서 공연한다. 대학합창단은 23일(월) LA에 도착, 24일(화) 오전 10시 Sisters of

서부교계 게시판

제9차 OC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관하는 제9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21일(토) 오전 7시2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개최된다.

▲ 문의: (714)213-9627

감신 미서부지역 미 서부지역 동문회 신년하례식

감리교신학대학교 미 서부지역 동문회(회장 김종환 목사) 신년하례식이 23일(월)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하례식은 ‘봄의 소리 음악회’란 주제의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 정기 총회후에 제4부 순서로 ‘봄의 소리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음악회에는 테너 박인수 교수, 반주 이하늘, 소프라노 김미경, 테너 오위영, 바리톤 권상육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 문의: (213)435-8738

은혜한인교회 2023년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의 2023년 신년축복성회가 26일(목)부터 29일(주일)까지 조지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개최된다.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Uni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복성회 강사 조지훈 목사는 경기도 일산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Joyful Church)’를 담임하고 있다.

▲ 문의: (714)446-6200

플라워마운드교회 창립24주년 감사합동예배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 창립24주년 감사합동예배가 22일(주일) 2부예배(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214)513-7707

디카시인협회 설립예배

디카시인협회 설립예배가 21일(토) 오전 11시 멜리데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422-8916



토랜스조은교회 창립 32주년 감사예배에서 김우준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토랜스조은교회 창립 32주년 감사예배

“페데믹의 긴 잠에서 깨어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회복하자”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창립 32주년 감사예배를 15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김우준 목사가 ‘은혜(롬 12: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느슨해지거나 하지 않게 되었다”며 “지난해 우리의 상태, 말씀, 기도, 예배시간 역시 흐트러졌다. 이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자의 삶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말씀의 영적예배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합당하고 당연한 예배라는 의미”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며 “

토랜스 조은교회는 1991년 1월 ‘사우스베이 한인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Carson 지역에서 김바울 전도사의 인도아래 첫 예배를 드립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인 부흥을 이뤄 왔으며 1999년 토랜스 조은교회로 개명했다. 담임 김우준 목사는 2017년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오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나성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예배에서 신동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나성한인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예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열심을 내자”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창립 47주년 기념예배가 15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신동철 목사 사회로 오전 11시에 열린 2부 예배는 조이찬양팀이 찬양했으며 임선기 장로의 기도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마 16:13-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신동철 목사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첫째 구원의 진리 때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진리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온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두 번째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를 벗어나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늘의 축복의 가장 큰 것은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님보시기에 귀중한 보배이며 예수 그리스도 품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존재다. 사

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철 목사는 “오늘은 나성한인교회가 창립 4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성한인교회를 구원의 진리위에 굳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의 은혜가 많았고 회복의 은혜가 많았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더욱 성실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신동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대학합창단 2023년 미주순회 연주회

한국대학합창단(지휘 신승용 교수)이 지난 2019년에 이어 4

년 만에 미주지역을 방문했다. 한국대학합창단 2023년 미주지역 순회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3일(금) 미주지역에 도착한 대학합창단은 아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19일(목)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동하여 20일(금) 텍사스대학교 Dell Seton Medical Center atrium, 오스틴 Jessen Hall, 21일(토) 오스틴한인장로교회, 22일(주일) The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에서 공연한다. 대학합창단은 23일(월) LA에 도착, 24일(화) 오전 10시 Sisters of St. Joseph of Carondelet 수녀원 공연을 시작으로 25일(수) USC합창수업에 참관하게 되며 수업시간에 합창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27일(금) 오후 6시 미라클랜드 한인침례교회, 28일(토) 오후 6시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 29일(토) 오후 5시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천영 목사)에서 공연을 갖는다. 한국대학합창단은 1966년 5월 17일 창단하여 56년 동안 찬양을 통한 선교와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며 합창단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2021년 정기연주회(11월)를 재 시작으로 2022년 4월 고난

(기사제공: 한국대학 합창단)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 성장, '세계 선교' 지향 바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17일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가 저물고 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세계 선교 지향이 바뀌면서 한국 선교계도 새로운 선교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3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4년마다 열리는 엔코위는 한국 선교계가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다. 2017년 7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주최측은

선교사와 선교단체 관계자, 선교학자, 목회자 등 6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이 해외선교지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자본을 들여 선교하는, 이른바 서구 중심의 선교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엔코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비서구권 나라들이 연합해 선교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코위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선교와 거룩'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등 네 가지 주제를 다

룬다. 참석자들은 '다음세대 선교 동원' '정보화 시대와 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여성선교사' '가정' 등 9가지 주제의 영역별 모임에서 세부 실천 과제를 평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한철호 엔코위 프로그램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임에도 4차 산업시대 선교를 위한 조사와 아카이브(자료 보관) 시스템이 별로 없다"며 정보화 시대의 선교를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KWMA 이사장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KWMA 가 새해를 맞아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비상하게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3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4년마다 열리는 엔코위는 한국 선교계가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다. 2017년 7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주최측은

선교사와 선교단체 관계자, 선교학자, 목회자 등 6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이 해외선교지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자본을 들여 선교하는, 이른바 서구 중심의 선교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엔코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비서구권 나라들이 연합해 선교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코위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선교와 거룩'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등 네 가지 주제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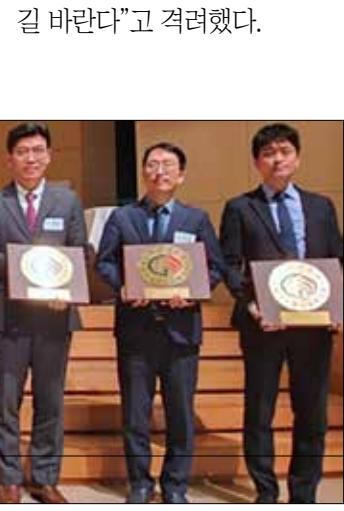
룬다. 참석자들은 '다음세대 선교 동원' '정보화 시대와 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여성선교사' '가정' 등 9가지 주제의 영역별 모임에서 세부 실천 과제를 평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기독교 최초 OTT 플랫폼 서비스 'CTS JOYGO(조이고)' 오픈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 보유, 기독교 콘텐츠 제공

CTS 기독교 TV(회장 김경철) 오픈했다.

'CTS JOYGO'는 CTS 기독교 TV에서 27년 동안 방영된 약 30만편의 설교, 프로그램, 뉴스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터 3개월간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열고 산하 교회에 전도사역을 독려했다.

빛나는교회는 삼가교회지만 대형교회 이상으로 모든 열정을 전도에쏟아붓고 있다. 통상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하기도 힘든 전도대회를 세 차례씩 진행한지 10년이 넘었다. 서학복 목사는 "성도들은 1차 때 전도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2차, 3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며 "모든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교회까지 데려오도록 지속해서 코칭하는데, 이때 강조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관심이다. 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의 특징과 성격, 환경 등을 잘 관찰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도움을 주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빛나는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신현파 목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종회회관에서 개최한 '성결인의 전도대회 시상식'에서 1등을 차지했다. 예성은 지난해 10월부



소외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 '일곱 빛깔' 선율의 기적

기아대책-GS리테일 문화소외계층 돕는 '무지개상자' 성과 발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나흘에서 아동문화정서 지원사업 '무지개상자' 성과 발표회를 서울 강남구 GS 강남타워 세미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대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왔네요."

현직 역사교사 15명과 기독교문화유산 탐방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1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현직 역사 교사 15명과 함께 기독교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재부흥의 길을 찾으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에게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을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탐방은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출발해 정동교회와 경기도 화성 제암리 3·1 운동 순국유적지,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박물관,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 대구 근대문화 유적지 청라언덕 등을 답사한다.

새문안교회에서 이들 교사 를 만난 이영훈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회가 교권·물량주의 속에서 지도력을 잃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재부흥의 길을 찾으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답사에 참여한 흥상의 과천 문원중학교 교사는 "역사 교사로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 답사로 그 현장을 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OYGO'는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를 보유하고 있다. 성경별 검색은 물론 절기, 주제, 인물 등의 설교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갖췄다.

또한 '제자 옥한흠' 프리미엄 다큐와 국내외 기독교 명작 영화, 웹 드라마 등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매주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JOYGO' 콘텐츠 담당자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CTS 기독교 TV에서 제작하고 업선해 제공하는 JOYGO의 콘텐츠가 미디어 선교와 복음 전파, 신앙 성장의 좋은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상자 프로젝트는 기아대책이 2005년부터 GS리테일의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활용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동안 711개소 1만2527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현재는 전국 23개소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성과발표회는 '무지개상자' 사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고 사업 전개 이후 측정된 사회적 임팩트를 공유하기로 마련됐다. 발표는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상미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지개상자"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회복탄력성 증진과 함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음악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발표 이후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무지개상자' 오크스트리의 대면 연주회도 진행됐다. 현장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GS리테일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무대를 함께 관람했다.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5)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시대를 거스르는 선교적 헌신

지역교회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교회의 사역철학과 방향이 보인다. 개인의 재정 흐름을 보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일 년을 결산할 때 어느 곳에 얼마를 사용 하였는지 보고를 하고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는 제직회와 함께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결산과 다음 해의 사역계획과 재정예산을 승인하여준다. 교회에서 선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회의 건강을 점검하는 중요한 좌표가 된다.

한국의 전주에는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 한 독특한 교회가 하나있다.

개척 목회자인 이동휘 목사는 1983년 전주안디옥교회를 개척하고 2006년 은퇴할 때까지 예산의 60% 이상을 국내외 선교비로 사용했다. 1986년 바울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의 목회 기간에 77개국에 37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현재는 92개국에 497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회로 성장했다.

이 목사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도전하여 선교를 위한 혁명적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가 아니라 선교목사가 되어 현장에서 뛰고 있다. 흔히 원로목사의 자리가 후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어서 후임목회자가 본인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동휘 목사는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무연고 지역으로 이사하고 후임목회자가 자유롭게 사역을 펼쳐 가도록 도왔다. 전주안디옥교회는 교회의 유급직원을 최소화하여 교회 많은 재정이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가대는 자원봉사하며, 각 부서의 회식이나 기타 모임을 위해서도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에게 뺑하니를 나누어주는 것 보다 그 돈을 선교사에게 보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금심을 심어줄 때에 더 열심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융자를 얻어서라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거르지 않고 지원하였다. 이런 정신이 살아 모든 교인들은 자신이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아 가야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선교의 헌신은 재정을 넘어 모든 분야의 헌신을 요구한다.

되라는 것이다. 이목사는 두 딸 가정과 두 아들 가정을 모두 선교사로 보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이다. 선교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할 때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느낄 때 부모처럼 선교사의 삶을 자신들이 살아내기가 너무 벅차서 자신들은 선교사보다는 선교사를 돋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야겠다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교지도가 교회와 개인의 삶에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다양한 선교지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그룹들이나, 기존의 다락방과 같은 모임들을 실질적인 선교지도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넷째는 물질 선교사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현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물질선교사로 살라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현금이 교회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맡기신 것이다 여기고 선교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지난 해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과 남을 위하고 선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비교

다. 오히려 더 힘든 선교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더욱 절약하여 선교사역을 더 잘 감당하도록 지원을 늘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는 직장 선교사이다. 직장을 나갈 때에 선교사로서 직장에 파송된 심정으로 나가 일하고, 학교에 갈 때에도 선교사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다니라는 것이다. 남편을 직장에 보낼 때에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선교사님, 학교에서 잘하고 오세요”라고 말하고 보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는 것이다.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이며, 가는 곳이 어느 곳이나 선교지라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지키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지적이다. 나의 모든 삶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세속화가 심각하게 일반화된 서구사회에서 종교와 모든 삶을 구분하여 간접을 배제하는 사회에서 외부의 도전이 심할 때 가장 쉬운 길은 분열

양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학가족화되는 시대에는 종교를 따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럴 때에 자신이 가족을 위한 선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당했던 편박과 심지어 순교의 길까지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지금도 모슬렘 나라들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우리들의 환경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문화 선교사이다. 인터넷등 문화의 이기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것이다. 토요일마다 믿지 않는 친구, 동창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설계를 발표하신다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성으로 그렇게 하면 언젠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문화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어찌면 너두나 쉽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는 길거리 선교사이다. 택시를 타면 잔돈을 받지 말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라고 말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전도의 기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체가 큰 역할을 감당하여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8가지 선교사의 모델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쁜 소식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해, 수많은 도전을 만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

이동휘 목사는 교회가 선교비를 조금 내는 것으로 선교를 하였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선교사로 여기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성도 모두가 따라야 할 8가지 선교사의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는 해외 선교사이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외로 파송받은 전통적인 선교사의 모델이다. 아직도 의도적으로 찾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자체적인 전도의 가능성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이 7,400여 종족이 남아있다. (<https://joshuaproject.net/>) 이를 위해서 아직도 전문적으로 전달하여 복음을 전하려 가야 할 해외선교사들이 필요하다.

둘째는 부모 선교사이다. 자식을 선교사로 바치는 부모가 고 생각하고 비즈니스쪽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면 아예 부모가 선교사로 살아온 삶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신앙에 큰 시험에 빠져서 선교를 도외시하거나, 신앙을 떠난 예가 있다. 그런 일에 비춰볼 때 이동휘 목사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네자녀가 모두 선교사가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후원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었을 터이나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선교사가 되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선교사를 귀하게 여긴 그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기도 선교사이다.

기독교인을 서서히 죽여가는 길이기도 하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가족 선교사이다.

디모데전서 5:8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가족들, 친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심으로 노력하여 집안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핵가족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

이다. 한국 민족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특히 돋보였다.

심지어 부모는 유교의 전통 집

안에서 평생을 지내왔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생기고 혹

시 그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면 부모들과 형제들이 체면

을 보아서라도 교회에 나와 신

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 내가 애완동물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선교비로 현금하고 사용한 것보다 많았다면 가치관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교회 운영과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된 재정이 타인과 특히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에 월등히 많았다면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동휘 목사의 부르짖음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새해에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재정긴축을 한다며 눈을 돌리는 것이 선교비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게 책정된 선교비를 줄여 파송이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며 개인 성도의 삶도 변화해야 할 것이

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인을 서서히 죽여가는 길이기도 하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는 직장 선교사이다. 디모데전서 5:8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다. 가족들, 친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심으로 노력하여 집안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핵가족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

이다. 한국 민족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특히 돋보였다.

심지어 부모는 유교의 전통 집

안에서 평생을 지내왔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녀가 생기고 혹

시 그가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면 부모들과 형제들이 체면

을 보아서라도 교회에 나와 신

에서 전부를 드리신 모양입니다. 제사장은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썼는 물을 위해 간직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민 19:9).

또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부정케 된 자들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민 19:11-22). 누구든지 부정함에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자는 이스라엘에서 끌어질 것입니다(민 19:13,20). 하나님은 부정함, 정결하지 못함 그리고 범죄함에 대해서 싸우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레 11:44,45)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부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모습’과 싸우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아닌 자신들만 생각하는 백성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familyfa@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24강. 가나안 정탐, 아론의 지팡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 (민수기 13-19장) (3)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민 17:2,3)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하시고(민 17:4)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심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민 17:4,6).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민 17:8).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민 17:10)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

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문제이므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민 18:1).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가지는

성막에서의 의무와(민 18:2-6) 그들의 성막 봉사에 따른 봉에 대해(민 18:21-24)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을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민 18:25-32). 또한 아론 자손들이 될 수 있는(출 28:1/ 레 1:5,7,8) 제사장들이 가지는 성막에서의 의무(민 18:1,7)와 그들의 영구한 봉에 대해(민 18:8-19)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연약’입니다(민 18:19). 하나님

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민 18:20)고 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23강에서 ‘레위인은 내것이라’는 주제로 레위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조상 레위가 신실해서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민 18:6)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민 18:7)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과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모두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느 하나님과 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지자로 큰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여 흄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히 말아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민 18:32). 다시 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온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폐역했습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선지자도 악했고 제사장도 악했고 왕들도 악했

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다음에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의 율례로 온전하여 흄이 없고 아직 명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잡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라고 하십니다(민 19:2-4). 그리고 그 암소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흥색 실을 가져다가 그 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십니다(민 19:5,6). 온전하고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말씀에 순종하므로 승리하는 다윗 (삼하 5:13-25) 찬 351장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직통 지역이 비옥한 땅 르바임이다.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올라가 싸운다. 그러나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치고 올라오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략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명령한 작전대로 순종하며 블레셋을 물리친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다윗 (삼하 6:1-11) 찬 400장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 의 궤를 옮기기 위해 삼만명의 무리를 모으고 새 수레를 준비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운갖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한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불들었다. 그 일로 웃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는다. 다윗은 두려움에 하나님의 궤를 오랜에동의 집으로 옮겼다. 얼마 후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대

로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무사히 다윗 성으로 옮겨온다. 다윗은 분명 자기 나름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데 심려를 기울이며 최선의 방법을택했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우리도 때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따라야 함을 잊지 말자.

수 구원자 하나님께 우린 어떤 모습인가? (삼하 6:16-23) 찬 292장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 올 때 그 기쁨을 감추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 그리고 번체와 화목제를 드리며 온 백성들에게 축복한다. 그러나 다윗이 뛰놀며 춤춘 모습을 본 미같은 다윗 왕의 모습을 심하게 비난한다. 그때 다윗은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고 분명히 답한다. 다윗은 분명 자신을 택하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몸을 다해 기쁨과 감사를 표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표현은 예배이다. 이 예배를 우린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앞에 드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자.

복 다윗과 언약하시는 하나님 (삼하 7:1-17) 찬 546장

다윗은 언약궤를 성막에 두었고 나라도 평안히 살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한다. 나단도 이런 다윗에 계획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계획 앞에 하나님은 '나는 어느 지파에게도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책망한 일이 없다'고 말씀 하시며 다윗과 언약하신다. 항상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을 위대하게 하겠다(7절),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9절), 다윗과 그 나

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3절). 이 언약은 오늘날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동일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할 것이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힘을 내자. 하나님은 나의 왕,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유라고 외치자.

금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기도의 자리 (삼하 7:18-29) 찬 364장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는다. 기도의 진정한 자리로 나아간 다윗의 모습이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18절),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오직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고백이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26절)라고 간구한다. 오직 주 앞에서 견고할 것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담겨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한다. 오직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며 오직 주 앞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해 달라는 간구를 올리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을 살자.

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삼하 8:1-18) 찬 500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있다.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1절), 동쪽으로는 모압(2절),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하맛(3-12절)을 복속시키며 정의와 공의(15절)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다. 그는 통치자로 백성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행했다. 서기관을 두어 중요한 정치 기록을 남겼고 다양한 행정 기능을 담당해 했다. 제사장을 두어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도 했

다. 다윗은 하나님 왕이시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왕국은 완성되어 갔다. 우리도 하나님이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뿐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과연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보자.



교회음악 이야기(27)

베토벤과 환희의 송가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1703-1758)가 쓴 책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The Glory and Honor of God)"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위대함에는 완전함, 탁월함, 선함 등이 전부 포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찬양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이치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나단의 고백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 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중에 전통적으로 송영 찬송(Doxology)으로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이 찬송의 멜로디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멜로디를 가지고 장로교 목사요 프린스턴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헨리 벤 다이크(Henry Van Dyke, 1852-1899) 목사가 가사를 만들어 찬송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벤 다이크 목사께서 1907년 매사추세츠주 워리엄스터운에 있는 워리엄스 칼리지에서 객원 설교자로 봉사하던 중 어느 날 베크셔 산맥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고 쓴 시를 헨리 홉킨스(Henry Hopkins, 1837-1908), 당시 워리엄스 칼리지 총장에게 건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나의 영감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환희의 찬가'의 음악에 맞춰 불러야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멜로디를 각색한 것은 이 생동감 넘치는 가사의 완벽한 맞춤같아 보입니다. 마치 베토벤이 직접 헨리 목사님의 시를 가지고 작곡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사와 멜로디의 조합이 뛰어난 찬송입니다.

4절의 가사로 되어진 내용 속에 첫 번째 절은 낭만주의 시의 공통 주제인 빛과 어둠의 대조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낭만주의 시대의 공통 주제이기도 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이 멜로디 원본의 주제가 되는 인간 창조와 인류의 형제애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님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승전기를 부르며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회롭게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베토벤이 1792년 그의 나이 22세가 된 해에

프리드리히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의 시 "환희의 송가"(Ode "An die Freude")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봉건주의 사상으로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억압의 시대를 벗어나 모든 시민이 영웅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 한 형제가 되어 기쁨을 나누자는 내용이 핵심이 된 이 시를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된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으로 이 위대한 시를 표현하고 싶은 영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이 시를 음악으로 완성하기 까지는 무려 3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실러의 시를 접하게 되었던 1792년, 그때 그는 아직 교향곡 1번도 작곡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1808년 Choral Fantasy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을 위한 환상곡) Op.80을 쓰면서 기악음악의 한 장르에 포함시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주제 선율이 그의 교향곡 9번 4악장에서 주제선율의 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바로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멜로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향곡을 9개 남겼는데, 그중 9번 교향곡을 1824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 음악 세계가 가장 원숙하게 되었다고 한때가 되어서야 이윽고 베토벤은 이 시를 그 교향곡 마지막 4악장에 음악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최후의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에 실러의 시를 쓰기로 결심하고 32년이 지난 54세 때 그 곡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실러, 그리고 그것에 깊은 영감을 받고 32년을 준비하여 선율로 그 감동을 만들어 낸 베토벤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또한 그 주제 멜로디에 영감을 받아 찬송시를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벤다이크 목사님이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러, 베토벤, 벤 다이크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순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계 5:12에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 했던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실러, 베토벤, 그리고 벤 다이크, 이들도 모두 각 분야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생을 살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또 사역의 목적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 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비 |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헛지빌드 |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임글우드 |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 뉴저지 | 201.945.2009

“남미선교 정보 및 미래선교 동향”

들어가는 말

2022년 11월 8-11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는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선교대회 주제 측으로부터 “남미선교 동향 및 전략분석” 주제 강의를 요청받았다 디아스포라인 타문화권 개척선교 40년을 지나면서 의미있는 강의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

1. 역사적 동향

중남미 역사는 크게 5기로 나눌 수 있다. 고대문명시대, 식민시대, 후 식민시대, 군부 통치시대, 민선으로 바뀐 현대시대로 나눌 수 있다.

▲ 고대문명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전에 중남미에 고대 문명이 자리잡고 있었다.

- 이즈텍(The Aztecs)제국. 14세기 중앙멕시코 고원지대에 세워짐
- 마야(The Maya)제국. 4-8세기 유타칸반도(남부 멕시코와 과테말라)
- 잉카(The Inca)제국. 15세기 안데스 지역에 세워짐

그밖에 아마존 유역에 인디오 원주민을 비롯한 오육백의 종족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 식민시대 (1492-1821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스페인.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물려와 신대륙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식민화 했다.

▲ 후 식민지시대

Caudillo독재 시기(post-Colonial 1824-1930년)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Criollo들이 섭정 또는 독재하면서 다스렸던 시기 멕시코의 San Ana, 알젠틴의 Juan Manuel de Rosa, 파라과이의 Francia, Carlos Antonio Lopez, 베네수엘라의 José Antonio Paez 등 스페인어권 라틴아메리카 아메리카 모든 나라가 20세기 중반까지 독재자들의 통치를 받는 시기이다.

▲ 군부 통치시대(1930년 이후 1980년대까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를 군부통치시대라 명한다. 1950년대 냉전시대 시대 쿠바공산혁명(1950년) 등 무장한 군부가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갖추어 안보와 경제성장 구조 개혁함으로써 중남미 전역에 개발되고 풍요 속에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중앙집권적인 집권적인 군부통치 시대를 가져왔다. 이 기간이 많은 인권유린과 독재가 있었고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로 IMF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민선을 통한 현대시대

중남미의 군사정부는 대체로 억압적, 배제적 구조와 연이은 오일쇼크와 쇼크와 세계 경제 침체, 외채 위기는 군사정권의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무장된 군인들이 병영으로 돌아가 민선 시대가 시작되었다.

2. 선교적 동향

1) 중남미의 모든 지역은 선교지로 라틴 아메리카(남미) 국가와 중미국가, 서인도 제도(カリ브) 국가로 나눈다.

▲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19개 나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다가 오늘날에는 Belize(스페인어 영어사용) Surinam(네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델란드어 사용) Guyana(영어사용) French Guiana(불어사용) Falkland Islands(영어사용)를 포함하여 24개국으로 구성된다.

▲ 중미(Central America) 국가

전통적으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カラ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5개국을 말하였으나 오늘날은 파나마와 벨리체를 포함 7개국을 의미한다.

▲ 서인도 제도 (Caribbean해)

12개 독립국과 10개의 도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남미 전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민자 후손들과 노예로 실려 온 후손들 모두가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간직해 오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종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키도록 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선교사역을 해야 할 선교영 역임을 알아야 한다.

2) 인종

선교적 관점에서 중남미 지역이라 함은 중미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아메리카 24개국과 카리비안 해안국가 22개국을 합한 46개국을 말한다. Operation World의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5억1913만1119명으로 나타나 있다. 중남미에 사는 인종을 다섯 부류로 나눈다.

- Euro American(이민온 유럽인) 45.5%

- Mixed race(혼혈인) 39.1% - Amerindian(원주민 인디언) 10.2%

- Afro American(중남미 전역에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후손) 9.1%

- Asian 1.1%

3) 종족과 언어

46개국 전 지역에 1,509개의 종족으로 약 5억2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언어는 1,183개이고 이들 중 신구약 전체 성경번역이 25개 언어 신약만 254개 언어가 성경 단권 200개 언어가 번역 중에 있는 언어는 249개 언어이다.

3. 미주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남미 지역 혼란 문제와 미래 선교전략적 방향

1) 중남미 선교지를 향한 관심과 사랑

2) 전략적으로 원인이 되어야 한다

3) 차세대 리더의 발굴과 양육 및 파송을 위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

4) 비지니스 선교와 디아스포라의 융합한 자비량 선교전략 연구와 개발

나가는 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가족 중심이 되어 4대에 걸친 인이 출애굽 할 때 장정만 60만으로 국가가 되어 나왔습니다. 흘어져 추수군의 낫을 기다리는 황금벌판 중남미를 보십시오! 합중국인 미국과 중남미는 선교 대국으로 형제 의식을 가지고 미주총회가 세계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남미출신. 증경 종회장님들이 이번 대회를 치루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감사합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남미 지역 선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모임을 갖도록 자리를 만들고 중남미 지역학을 연구하고 중남미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역에 필요한 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참신한 인력을 투자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나머지 과업이 완성되도록 함께 일어나십시오.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앙아시아 K국

▲ 종족명

키르기스 종족

▲ 인구

인구 약 500만명(국내 400만명, 국외 100만 명)

▲ 종교

이슬람, 기독교인 1만 명 이내

▲ 프로젝트 소개

1997년 신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2005년 봉헌했다. 2012년 구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으며, 신약 성경도 개정하여 2025년 구약 성경 완역과 성경전서 출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번역자들이 번역하며 좋은 설교자와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성장하고 찬양 음악가들과 함께 찬양집도 만들며 죽제도 열고 있다. 또 성경을 오디오로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보급하고, 성경 날권이 번역될 때마다 전국으로 보내어 읽고 점검하게 함으로써 미리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기도제목

1. 번역팀원들이 각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2. 현지인과 외국인이 같이 일할 때 오해 없이 잘 협력하도록
3. 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성경이 교회에서 잘 사용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2023년 봄학기 개강부흥회·강의

개강부흥회: 너를 부르신다 (마태복음 4:19-20)

2023년 1월 31일(화)-2월 2일(목) 오후8:00



권호 목사



임도균 목사

한국 합신대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
M.Div,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대학부	신학사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대학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2023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3년 1월 27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원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3년 1월 28일(토) 오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3년 1월 31일(화) - 2월 2일(목) 오후 8시

문의처: 학감 경기태 목사: 917-733-7387

행정실장 김신정 전도사: 646-708-1101

사무실: 718-463-7163

주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 온라인
100% 트랙

영성과 상담코칭 박사과정 신설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박사과정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수료과정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QR
코드
이미지**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